

여수시, '국제버스킹 페스티벌' 개최

오는 23일~25일, 국내외 버스커 18개 팀 참가 아트마켓·낭만비어 등 볼거리·먹거리 풍성

전 세계 수준급 버스커가 낭만의 도시 여수에서 축제를 연다.

여수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국제버스킹 페스티벌 및 전국버스킹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버스커 18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밤바다 일원에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공연과 경연으로 펼쳐진다.

주무대는 종포해양공원에, 보조무대는 이순신광장과 삼미 횃깃 앞, 빗광장에 마련된다.

올해로 세 돌을 맞는 국제버스킹 페스티벌에는 해외의 4개 팀과 국내 6개 팀이 참여한다.

해외팀은 프랑스 싱어송라이터 'Aancod', 캐나다 밴드 'Sotto Gamba', 러시아 재즈밴드 'Nadia Band', 미국 밴드 'Texas Flood'로 구성됐다.

국내팀은 이윤찬, 월광, 푸르른밤,

칸타빌레, 신해미, 문영석으로 어쿠스틱, 퓨전국악, 성악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여수시는 국내 버스커의 실력 향상을 돕고, 관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버스킹 경연대회'를 준비했다.

시는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29팀을 대상으로 예선을 진행해 본선 진출 8개 팀을 선정했다. 본선 진출팀은 지난해, Juno guitar, 불비트, 강인창(M.I.C), 오빠뿔, 해상화, 웨일를 레프, 프린스틴등이다.

결선은 오는 24일 저녁 7시 종포해양공원 특설무대에서 여수MBC 녹화로 진행된다.

결선 중간에는 미스트롯으로 유명해진 '요요미'와 3인조 혼성그룹 '왈와리', 포크계의 아이돌 '추가열'이 축하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운다.

이순신 광장에는 버스킹 외에도 볼



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하다.

아트마켓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다.

낭만비어를 방문하면 세계 생맥주를 맛볼 수 있고, 푸드트럭에서는 스테이크, 닭꼬치,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한다.

행사 기간 여수경찰서는 행사장 주변에서 교통 지도·단속을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여수소방서와 여수해양경찰서는 구

급차와 구조대를 준비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여수중앙초등학교는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한다.

시 관계자는 "버스커와 방문객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축제 한마당을 만들 계획이다"며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구례군, 아동대상 인터넷 중독·성폭력 예방 교육

구례군 드림스타트는 최근 문화예술회관에서 초등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아동학대·(성)폭력 예방교육 및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을 통해 정확한 신체 용어의 사용으로 개념 정립과 여러 위험 상황에 대한 각각의 대처 방법 등 아이의 참여와 관심을 이끄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한 일부 아동은 집중력 부족과 폭력적인 언행, 학업 부진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행동을 보여 학부모와 교사가 양육 및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교육은 전남 스마트 캠퍼스와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예방교육 동영상 시청하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 방법에 대해 O·X 퀴즈를 풀어보는 등 아동 스스로 인터넷 사용 습관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아동들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의식을 함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2019년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선정

강빛마을 활용한 혁신프로젝트 사업

곡성군은 '강빛마을을 활용한 혁신프로젝트 사업'이 '2019년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로 지난 14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군의 지역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올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2천 8백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생생한 자연 속에 은둔자 마을로 조성된 죽곡면 강빛마을의 시설과 현직에서의 풍부한 경험으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은둔자리는 인적자원을 융합하여 인문학 강의와 관광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내 부존자원의 가치를 재확립하고 활용도를 높인 점과 강빛마

을을 중심으로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는 점이 높은 점수를 이끌어냈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이 지역 혁신협의회와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군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혁신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보성군 보건소, 새단장 마치고 주민 맞을 준비완료

지역민의 건강증진 공간으로 활용 기대

보성군 보건소가 8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을 맞이한다.

이번 리모델링은 주민 편의 공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1층은 노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약자를 배려한 진료 및 민원편의시설 공간으로, 2층은 통합 건강 증진실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프로그램 등을 한 곳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3층은 사무공간, 4층은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배치됐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신건강 의료 욕구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보호실, 상담실, 정신장애인의 쉼터 공간이 마련돼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상담, 교육 및 재활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박경희 보건소장은 "이번 시설환경 개선을 계기로 보건소가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공간으로 심분 활용되길 바라며, 보성군민의 건강행복 수명연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신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보조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786㎡ 지상 4층 규모의 정신건강지원센터 증축을 마쳤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시, '국가별 페스티벌' 다문화 소통공간 '다가온'서

순천시는 지난 6월 다문화가족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소통을 위해 개소한 '다가온'에서 필리핀과 태국의 국가별 페스티벌을 지난 17일 진행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다문화 가족들과 비다문화 가족등 15가족 50여 명이 참여했다. 태국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통의상 체험과 전통놀이 체험, 태국과 필리핀 사람들이 즐겨먹는 간식을 만들어보고 시식하는 등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 놀이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교류·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에게는 퀴즈와 미션을 통해 스티커를 증정하고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인증샷을 올린 가족에게는 선착순 이벤트 기념품 나눔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국가별 페스티벌은 매달 1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9월에는 베트남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순천시 여성가족과(749-6275)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농업인 안전보건 교육 추진

고흥군은 농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농작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9년 농업인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성농업인, 귀농인 등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대교육장에서 실시된다.

특히, 농업관련 작업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

병 예방 요령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작업 재해·예방 관리 중요성에 대해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 급변 교육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말했다.

교육과 관련된 문의는 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1-830-6856)에서 가능하다.

고흥=한윤섭 기자

광양시, 전승공예대전 수상작 특별전



시의 수상작품 전시를 통해 우리 공예의 우수성을 공유하고 무형유산으로 가치가야 할 전승공예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해 전통공예와 전승사업의 가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전은 대통령상을 비롯한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화재청장상, 국립무형유산원장상의 수상작품 '용봉문합'의 39 점을 전시함으로써 우리 공예의 전통을 이어가고 작품성 높은 역대 수상작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통공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20일 14시 광양장도전수교육관에서 개최되는 특별전 개막식은 국악인 오정혜(국가무형문화재가협회 홍보대사)의 사회로 축하공연과 개막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정신청서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업안정 인사관리방안 안내